

한지의 변신 ... 예술이다 예술!

한지공예의 세계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찍어 낸 한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염색종이

종이집기에 관심이 많아 꾸준한 종이집기를 배운 임영신(33세, 종이에 대한 관심은 전통한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왔다. 그런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한지공예. 이제는 어지간한 한지 소품들은 쉽게 만들어낸다.

최근 한지공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고 따뜻함과 은은함이 흐르는 종이'로 표현되는 한지를 통해 잊고 지내던 정감을 되찾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종이는 바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찍어 낸 한지다. 여기에 사용된 닥종이는 황벽물을 들이는 등 우리나라 최초의 염색종이이기도 하다. 미국 애크렌타 디도 한터 종이박물관은 인쇄책에서 '한국인은 종이 원료 자체를 염색해 색종이를 쓴 최초의 장인이며 최초로 봉투를 만들어 쓴 민족'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한지공예의 세계를 조명한 '전통한지공예'(심화숙 지음, 우리출판사)가 발간되고, 서울 서대문 수호사에서 '한지공예체험관'을 개관하는 등 불교계에서 한지공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연잎을 꼬아 만든 지화공예작품 '연화' 사진제공=안성맞춤박물관

한지는 닥나무(楮)나 삼지닥나무(三枝楮)의 껍질을 원료로 만드는데 원료와 크기,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다. 용도에 따라서는 20여 가지로 분류되는데...

바르는 장판지 등이 있다. 다양한 한지의 활용법에서 알 수 있듯, 한지로 만들어내는 공예품은 다양하다. 한지공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장공예(紙藏工藝) 전지공예(剪紙工藝) 지공예(紙工藝) 후지공예(厚紙工藝) 지호공예(紙糊工藝) 지화공예(紙花工藝) 등과 한지그림, 닥종이인형, 각종 팬시 제품, 인테리어 등에 활용되는 현대적인 작품으로 구성된다.

한지가 전통공예 뿐만 아니라 현대공예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까닭은 한지공예만의 여러 장점 때문이다. 한지공예작품은 한지로 제작되기에 부드럽고 포근하다. 비단보다 곱고 질기다고 평가받는 한지를 여러 겹 덧발라 만드는 한지공예품은 견고하고 단단하다.

튼튼한 것에 비하면 가볍고 운반이 용이한 것도 장식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이다. 천연염료를 사용해 염색해낸 다양한 색상의 한지들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지공예 기법들을 살펴보자. 좁고 길게 자른 종이를 손으로 꼬아 다시 엮는 지승

가볍고 내구성 강해 장식품으로 인기

천염염료 사용 다양한 색상 표현 가능

기법따라 지장·지화공예 등으로 구분

연화문 만다라 등 불교문양 많이 붙여

공예는 짜는 기법에 따라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낸다. 깨끗한 종이보다는 인쇄된 서적을 이용하는 데 먹 글씨가 자연스럽게 무늬를 자아내 운치를 더한다. 완성된 작품에 기름을 먹이거나 옷칠을 하면 보존성

을 높여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잘게 찢은 종이를 물에 불려 찹쌀 풀로 반죽해 상품을 만드는 지화공예는 골격에 붙여가며 말리고 덧붙이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 끝조를 떼어내고 옷칠을 해 마무리하

는 공예기법이다. 바탕에 색지를 바르고 무늬를 장식해 호화롭게 꾸미기도 했다. 생활공품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한다. 닥종이 인형 종이탈 등도 지화기법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이다.

영산재 등 불교의식에 많이 사용되는 종이꽃은 지화공예에 속한다. 지화공예에는 불교의식화 뿐만 아니라 궁중상화라 해 꽃이 귀했던 겨울철 궁중대연회 때 쓰이던 종이꽃 등이 포함된다.

한지로 모양을 만들고 당초문 민화 등을 그려 문장식이나 생활소품 등을 만드는 지화(紙畵)공예도 있다. 오색찬란한 각종 색지를 오려 붙여 만드는 전지공예는 한지공예품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자랑한다. 반질거리에서 장롱에 이르기까지 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무로 골격을 짜거나 대나무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종이를 바르는 지장공예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마무리하기도 했다.

한지공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문양들이다. 특히 연화문이나 보살화문은 불교적인 의미를 가진 문양들이다. 보살화는 불교에서 숭상되는 이상화로 '만다라화'라는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산예문양은 사자를 가리킨다. 사자는 불법과 수행자를 수호하는 의미로 대일여래가 사자위에 앉아있다.

불수감 문양은 모양이 부처님의 손가락을 닮았다 해서 불수감이라 부른다. 불교의 상징무늬로 많이 쓰인다. 기하학적인 문양에는 불교의 '관자'를 활용한 완(卍)자문양이 있다. 단청을 문양화한 단청문양은 정황적극의 네 가지 색을 기본으로 단청을 한지에 옮겨왔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지장기법으로 틀을 만들고 전지공예로 마무리한 '시디장' (전경희 작).



백대위에 한지를 발라 만든 전통등 '나와 연꽃' (조순영 작).



한지로 합지로 틀을 만들고 글씨를 양각한 '반아심경 병풍' (심화숙 작).



합지로 골격을 만들고 한지로 문양을 살린 '오층탑(불탑)' (심화숙 작).



완(卍)자문과 연화문을 사용한 '보시함' (김영숙 작). 사진제공=우리출판사

불교와 한지공예

연등·영산재의 장엄지화 대표적 단절됐던 '건칠지불' 복원되기도

불교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한지공예품은 바로 연등이다. 연잎을 꼬아 만드는 연화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전통등이다. 등통(燈籠) 또는 제등(提燈)이라 해서 음력 4월 8일 절에서 행하는 관동(觀燈)의식에는 용등, 봉등, 거북등, 잉어등 등의 화려한 등이 사용됐다. 연등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불을 쬐는 용도 모두 이런 전통등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불교 의식에 많이 활용되는 지화는 영산재의 장엄지화 등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영산재 수륙재 등 의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엄지화는 영산재보존회 등의 장엄 담당 스님들로부터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지화는 사찰보다는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넘게 전통 지화를 연구한 궁중상화 연구소장 김태연 교수(대구대) 실내환경디자인과는 "궁중에서 대연회 등에 쓰이던 채화를 비롯해 영산재 장엄지화 연구를 계

속해 오면서 올 여름 16년 만에 월화 스님 운화(雲花)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지불의 경우 1998년 한국민족전승공예대전 당시 대동령상 수상작인 상기호씨의 '건칠지불(乾柴紙佛)'이 당시 몇 백 년의 단절을 겪고 복원된 유일한 사례였다.

건칠지불을 최초로 복원했던 상기호 회장(전통오색한지연구회)은 "통도사에 건칠지불을 기증한 이래 지금까지 문수·보현·지장보살 세 구를 제작했다"며 "조선 중엽까지 이어졌던 지불을 복원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꾸준히 못하는 등 전승이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지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보물 제415호로 지정돼 있는 경북 월성군 기림사 보살좌불과 백양사 극락보전에

남아있는 건칠지불 등이 몇 백 년을 이어 온 지불들이다. 지불은 삼베와 한지 모시 등으로 여러 번 발라 골격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옷칠을 하고 금색으로 마무리를 한다. 건칠지불은 그 수명이 천 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옷칠을 하면 외관이 아주 단단할 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냄새로 해충이 범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 만든 불상보다도 오래 보존된다고 믿어진다.

심화숙 회장(전통한지공예가협회)은 "한지공예 특히 한지는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사찰 문살을 매우는 한지에서부터 반아심경 병풍, 지필묵 보관함, 불전함, 다기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예품들이 불교의 향기를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로 만든 건칠지불 석가모니불(상기호 작). 사진제공=전통오색한지연구회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면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역!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하여 명문대가 부인들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공함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곡산삼(長谷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쇠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왔다.
- 만성위염이 나왔다.
- 월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전신이 떨어졌다.
- 백혈병이 나왔다.
- 전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안 팔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왔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저귀 울룩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봉사하는 마음으로 열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만 한정)

1Box(60포 : 20만원) 2Box(4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효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소중만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팔호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에서 스님에게 직접 만든... 山寺 조청

- ◆ 산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산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오르지 않는 山寺 참옷 조청 1.2kg

아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장보호,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위하여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원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화

상표등록 : 614981호
의정출원 : 제35872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화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화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 (동) 발바닥 무릎방지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지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삶의 대한 자신감과 용기도 향상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며 자비와 지혜가 생생되어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며, 완성된 인격과 덕망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과 행복입니다.

체계적인 수행법 1:1 개인면담

불교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장 소 : 보명선원 (종로5가 5번출구 1분거리)
□ 시 간 : 오후 2:00 ~ 4:00, 저녁 7:00 ~ 9:00(월~토)
□ 수강료 : 자율보시
□ 준비물 : 고무줄바지(츄리닝)

매주 토요일 오후 4 ~ 6시 각성근스님 대승기신론 유식론강의 서대원 박사 불전학문 상식속도강의

대덕로 1호선 5번출구 동서역역 동대문 서울중로역 보명선원 5층

보명선원 TEL 02)2273-8484 C·P 011-785-8813